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번뇌를 없애라.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3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8호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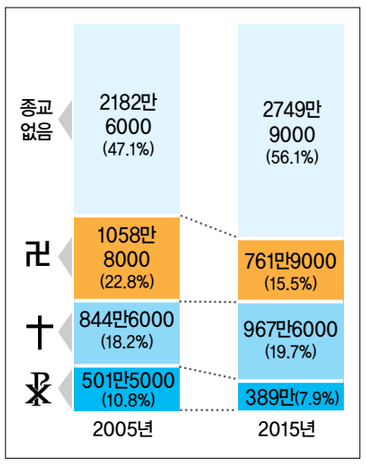
한국도 이젠 '脫종교사회' 불교 인구 290만명 감소

2015인구총조사 종교인구 부문 살펴보니

10년 주기로 통계청이 실시하는 종교인구 조사에서 불교신자가 약 290만명이 감소했다. 또한 종교인구 집계 사상 처음으로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추월해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불교 포교 종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2월 19일 발표한 '2015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불교신자는 761만 9000여명으로 개신교신자 967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신자 389만명, 원불교도 84만명, 유교 76만명 등이 집계됐다. 그동안 불교는 1000만명 선을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해왔다.

종교인구 변화 추이



국민 56% "종교 믿지않아"
'무종교인〉종교인' 첫 결과
개신교 인구도 불교 역전
'탈종교화' 대책 마련해야

불교, 경상권 강세 여전
수도권서는 2위 수성 위기
표본조사 방식 문제제기도

불자 감소는 '탈종교화' 이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교학자들은 불교신자의 감소 원인이 탈종교화 현상에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있는 국민은 43.9%, 없는 국민은 56.1%였다. 1995년부터 실시된 종교부문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사회가 '탈종교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없는 인구는 젊은 층에서 압도적이었다. 10대 62%, 20대 64.9%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60대 57.7%와 70대 58.2%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회활동 참여는 2010년 33.7%에서 2015년 31.1%로 감소했는데, 이 중 종교단체를 통한 참여가 3.1% 감소했다. 반면 문화단체를 통한 참여는 3.3% 증가했다. 사회 활동으로서의 종교는 현대인들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교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려는 냉담자가 증가했다. 종교 정체성도 문화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탈종교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인구는 급속히 변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웃종교에 비해 종교를 통한 보호가 약한 점도 이 같은 불교 신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사회양극화와 경쟁이 심화되면 사람들은 자기보호수단을 찾는다. 명상·수련 등 개인적 극복을 모색하거나 종교이익집단에 속한 집단적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신교에 비해 집단적 보호가 약한 불교에서 개인적 극복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며 감소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명상과 수련,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높다. 불자들은 점점 제도권에 포함되기보다 개인 수행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탈제도종교화를 전망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도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들었다. 김 명예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양극화와 경쟁심화가 확산되며 종교 근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개신교와 같은 조직력을 지닌 종교로의 유입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 명예교수는 "기존 개신교계에서도 지속적인 신자 감소를 고민해왔다. 이번 개신교 신자 증가를 두고도 개신교계 내에선 더 기복성과 조직력을 지닌 신흥종교, 개신교계에서 말하는 이단이 포함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포교는 분명한 과제

이와 함께 이번 인구총조사에서 불교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29.8%), 경남(29.4%), 부산(28.5%), 경북(25.3%), 대구(2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8.6%), 인천(8.8%), 광주(9.5%), 경기(10.7%), 서울(10.8%) 등 서부 지역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톨릭(서울 10.7·경기 9.0%)과의 격차가 근소해져 신도 수 2위 수성도 위기에 봉착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제3 종교로 전락한 지역도 많다. 도심포교당 운동과 포교사 양성과 기존 조직의 적극적인 활용 등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교 신자의 노령화와 더불어 불교세 급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는 기존 전수조사 방식에서 사전인터넷조사를 포함한 1100만명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으로 표본 설정 등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는 향후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인구총조사 결과는 종교 중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불교의 현실 등 불교가 가진 문제점을 되돌아 볼 기회"라며 "불교 인구의 증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2월 21일 북인사동마당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팥죽을 만들고 있다.

불교계 "팥죽 나눔은 전통문화 살리기"

12월 21일 전국 112곳서 동지나눔축제 열어

연중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를 맞아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나눔행이 펼쳐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21일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 등에서 '세시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동지나눔축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2곳에서 진행됐다. 축제에는 종단협 산하 26개 종단이 참여해 불교계의 전통문화 전승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축제의 대표행사장인 북인사마당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대표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전행사로는 청소년 타악밴드인 프롬코리아와 조계사 풍물패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다.

행사장에서 스님들은 직접 팥죽과 함께 양말, 염주 등을 담은 복주머니를 전달했다. 동지나눔축제에 참여한 김인자씨(63)는 "어렸을 때는 동짓날에 새알을 빚고 마을에서 풍물을 치고, 지신밟기를 하는 등 추억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추억마저 점점 잊혀져 간다"며 불교계에서 동지나눔축제를 연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내년 1월 '反성폭력불교연대' 출범

불교계 여성단체, 22일 기자회견서… 신고센터 개설도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뜻을 모아 내년 1월 반(反)성폭력불교연대를 출범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1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찻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선학원서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반성폭력불교연대(가칭)'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서 "그동안 교단 내 갖가지 성범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음을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반성폭력불교연대 준비위원회'로 활동을 개시, 선학원 성추행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학원 A스님의 공개참회 및 공직 사퇴 △선학원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직서 수리 및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검찰의 엄중한 사건 처리 등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내년 1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교계단체·언론·법조인 등에 연대활동을 제안하는 한편, 출범과 동시에 교단 내 성폭력고발신고 전화를 개설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처벌과 해결을 원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용이나 배후 등을 운운하며 사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면서 "출가자에 의한 성범죄는 승풍실추는 물론 교단의 위상과 불자의 자존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법적 기준에서의 처벌은 물론 계율로도 합창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28호 INDEX

현대불교신문 선정 2016년 10대 뉴스 5



그대는 자비보살 대구 영산합창단 14·15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초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